

HI FX Brief

이란 리스크 해소 시 달러-원 환율 반락의 계기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약세 재료만 반영하는 원화

- 달러화는 보험세를 이어감. 국제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달러화는 보험권 등락을 유지함
- 유로화는 주 초중반 국제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약세 및 5월 PMI지수 부진 등으로 약세 폭을 확대했지만 이란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하면서 전주대비 약보험세를 보임
- 엔화도 소폭 약세를 보임. 다카이치 내각의 추경 편성 소식과 이란 불안감 등이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
- 위안화 가치는 3주만에 다시 강세 전환됨. 미-중 정상회담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된데 따른 안도감이 강세 재료로 작용함
- 호주달러도 소폭의 약세를 보임. 4월 실업률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주달러 약세 압력이 확대됨
- 원화 가치만 유독 큰 폭의 약세를 보임. 주가 랠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확대, 이란 불확실성 그리고 배당금 송금 수요 등 약세 재료만이 부각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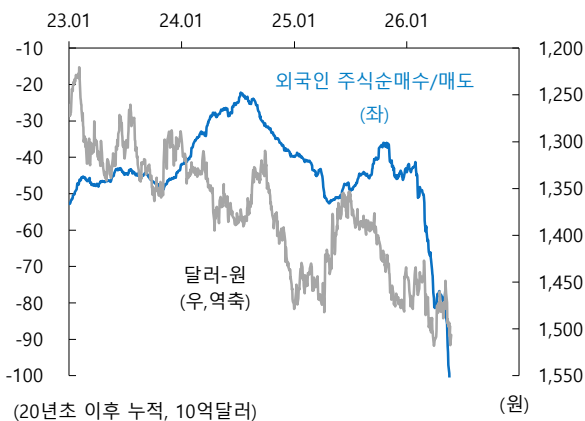
	5월 22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2	-0.05	0.93
유로-달러	1.160	-0.19	-1.22
달러-엔	159.2	0.28	1.58
역외 달러-위안	6.80	-0.23	-2.54
호주달러-달러	0.71	-0.32	6.80
달러-원	1,517.6	1.34	5.43

달러-원 환율 증가는 익일 2시 기준

금주: 이란 리스크 해소 시 달러-원 환율 반락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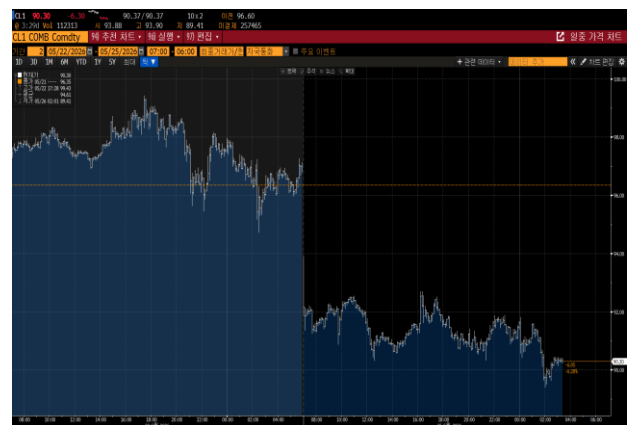
-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은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경우 유가 급락 등으로 비달러 통화, 특히 아시아 통화가치의 반등이 기대됨. 다만, 협상이 기대와 달리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재개될 수 있음은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나타날 것임. 금주 글로벌 외환시장의 초점은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여부임
-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여부에 따른 금주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임.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470~1,540원으로 예상함

그림1.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도 확대가 중요 원화 약세 재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90달러선까지 급락한 WTI 가격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